



[가격동향] GDT, 1.6% 오르며 6회 연속 상승세

- 서유럽 수출가격(전지분유 제외)도 상승



지난 2월 2일 실시된 올해 첫 GDT(세계유제품경매)에서 유제품 가격이 2주전 대비 1.8% 오르며 6회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는 버터가 지난 2019년 6월 이후 처음으로 톤당 5천달러를 넘어선 5,028달러(약 559만원)로 전장대비 6.2% 오르며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2주전 소폭 하락했던 체다치즈도 톤당 4,178달러(약 464만원)로 2.3% 상승하며 재반등했다. 전지분유도 톤당 3,458달러(약 384만원)로 2.3% 오른 반면 11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탈지분유는 1.5% 하락하며 톤당 3,198달러(약 355만원)를 기록했다.

Summary of Results

Number of Winning Bidders	103	Number of participating bidders	
Number of Bidding Rounds	17	181	
Duration of Trading Event (hours:min)	2:17	Quantity sold (MT)	
Minimum Supply (MT)	26,640	28,707	
Maximum Supply (MT)	32,075		

업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식품 서비스업이 백신의 보급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유제품 수요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분유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세계 유제품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1월 22일 USDA가 발표한 서유럽 유제품 수출가격은 2주전 대비 버터는 0.3%, 탈지분유는 1.4% 오른 반면 전지분유는 1.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globaldairytrade.info, 2월 2일, USDA, 1월 22일자 >

[정책동향] EU, 식물기반 대체식품의 ‘낙농용어 사용제한’ 놓고 갈등 계속

- 용어 사용제한 확대 · 유사 포장재 사용 금지로 낙농-대체식품업계간 갈등 고조



EU에서 낙농용어 사용과 제품 포장을 놓고 낙농업계와 식물기반 대체식품업계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동농업정책(CAP) 제171조 개정안’이 가결되며 식물기반 대체식품에 대한 낙농용어 사용제한이 확대된데 이어 시각적으로도 유제품을 연상시키는 포장재 사용이 금지될 것으로 알려지며 낙농업계는 환영하는 한편 대체식품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낙농업계는 식물기반 대체식품의 낙농용어 사용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한편 대체식품업계는 이로 인해 브랜드의 이름부터 제품명, 마케팅 전략 등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철회하도록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이 EU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경우 대체식품업계의 격변이 예상되며, 낙농업계와의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17년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미 식물기반 대체식품에 대해 ‘우유(milk)’ 또는 ‘요거트(yoghurt)’ 용어 사용을 금지한바 있다. < 출처 : retaildetail.eu, 1월 25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